



2017년 축산물이력제 연찬회, 1박 2일의 기록

고객홍보처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2017년 축산물이력제 연찬회가 지난 12월 7일과 8일 양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샤인빌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축산물이력제 연찬회는 축산물이력제의 정책방향과 축종별 이력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발굴·개선하여 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매년 12월 개최되는데, 제주에서 개최된 이번 연찬회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등 관계자 300여 명이 바다를 건너 참석했다.

이번 연찬회는 2017년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평가 결과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막을 열었다. 시상은 쇠고기이력제와 돼지고기이력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평가 결과로는 횡성축협, 순정축협, 전주김제완주축협 등 13곳이 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실태평가 부문에서는 축산기업조합 대전광역시지회 등 5곳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밖에 2016년에 비해 크게 발전한 성과를 보여 농협중앙회장상을 받은 수원화성오산축협, 군위 축협 등 총 30개 기관과 개인 2명이 이날 시상대에 올랐다.

시상식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이행실태평가 결과와 2018년도 정책방향 설명, 수상자들의 이행실태평가 우수사례 발표, 시·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단속 결과 및 계획 소개와 외부강사의 힐링 특강 등이 연찬회 첫날 일정으로 실시됐다.

다소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제도 관계자들인 참석자들이 공감하며 서로 배울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일까. 장내에는 기분 좋은 긴장감과 웃음이 계속 머물렀다.

연찬회 이튿날은 소통을 위한 시간이 많았다. 우선 첫 일정부터가 ‘참여기관 소통의 시간’으로 참석자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소속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참가자들은 폭넓게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축산물이력제 연찬회는
축산물이력제의
정책방향과 축종별
이력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운영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발굴·개선하여
제도의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와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이력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2018년 주요사업 설명 및 회의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도 관계자들은 2018년 도입 예정인 가금 및 가금산물이력제와 관련해 가금사육 농가 조사는 시·군·구에 등록된 내용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소 및 돼지고기 DNA검사 추진 현황과 농협의 소 위탁기관의 건의 사항 발표도 실시됐다. 단순한 사업계획 공지가 아닌 내용 공유와 발전을 위한 참석자들의 의견 교류가 함께 이뤄져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연찬회를 주관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백종호 원장은 “현장에서 축산물이력제가 잘 관리되도록 헌신해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축산물이력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확충, 이력정보의 품질 개선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수렴한 이행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물이력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우수위탁기관 시상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및 돼지고기 DNA검사 추진 현황 소개